

勞働市場에서 본 勞使紛糾의 原因 — 韓 · 日 比較 —

이 정 주 *

〈 目 次 〉

- | | |
|------------------------|-------------------|
| I. 勞使紛糾에 대한 認識問題 | IV. 勞使關係의 韓 · 日比較 |
| II. 一般的인 經濟狀況 比較 | V. 韓國 勞働政策의 方向 |
| III. 轉換期 勞働市場의 韓 · 日比較 | |

I. 勞使紛糾에 대한 認識 問題

1987년 6.29 이후 폭발적인 양태를 지니고 있는 勞使葛藤의 문제는 韓國資本主義 性格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그 심각성의 정도를 다르게 보고 있다. 6.29 이후 全國的이고 集中的인 勞働爭議를 기업가와 정책당국 측면에서는 지극히 평면적인 시각에서 產業平和를 해치는 매우 위험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쟁의 형태는 歷史的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성격규명을 하여야만, 적절한 대책을 통하여 올바른 勞使關係를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勞働政策을 수립해 나가는 중요한 指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노사분규는 노동시장에서의 價格機構(price mechanism)의 부작용으로 인한 資本主義의 構造的 矛盾 중의 한 현상이다. 특히 開發途上國의 경우 개발초기에 勞働需要보다 勞働供給이 크기 때문에 형성되는 저임금의 容認度가 산업화가 진행됨에 점차 낮아지는데 반해 임금인상은 經濟成長速度에 비해 硬直性을 지니므로 강력한 임금인상 요구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韓國經濟의 경우 1970년대 후반까지 노동시장이 二重構造的 性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은 물론 性別 調種別 學歷別 經歷年數別 賃金隔差가 극심하였다.

한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노동시장이 轉換點을 통과한 후 未熟練 生産職을 중

* 동서투자지분(주) 조사분석실장

심으로 중소기업의 업체에서부터 임금상승이 일기 시작하여 전반적으로 임금격차가 줄어들어 드는 현상을 보였으나, 직종별 학력별 경력년수별 賃金隔差가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 서서는 임금격차가 크게 改善되지 않은 상태에서 學歷間 혹은 熟練度 등에서 新二重構造가 나타나 노사분규의 불씨가 되어 있었다.

개발초기 정부는 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강력하게 개입하여 대기업 내지는 전략 산업에의 자본력 집중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상대적으로 過剩되어 있는 노동에 대해서는 低賃金과 열악한 勞動條件등을 감수하라는 요구가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게 되어 있었다. 또한 1970년대에는 1971년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으로 정치적 법적 측면에서도 노동운동은 강제적으로 억압당하여 왔고, 따라서 이에 대항하여 民主기가 되어준 것이 87년의 政治, 社會 민주화를 선언한 6.29였던 것에 불과하다. 資本主義에 대한 低抗勢力의 하나인 노동조합이 오히려 지금까지 왜곡되어 왔던 경제의 自動調節機能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本 研究는 한국경제의 현 발전단계와 비슷한 時期의 日本의 勞動市場과 勞使關係를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 一般的인 經濟狀況比較

韓國經濟는 1986년 이후 1988년까지 年平均 12.6%의 高度成長을 지속해 왔고, 一人當 GNP도 1987년에 비로소 3,000 \$을 넘어 섰다. 1980년대 후반 부터는 重化學工業의 성장율이 매우 빨라지고 있어 附加價值 중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산업구조도 점차 고도화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3차산업의 비중이 50%을 넘었고, 1次産業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15%도 채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현상과 비슷한 時期의 日本經濟는 대충 1960-65년이라 할수 있다. 이 시기에 經濟成長率은 年平均 9.8%(1965-70년엔 年평균 12.2%)에 달했고, 一人當 GNP가 3,000 \$ (1985년 불변)에 달했다. 이 기간에 제조업의 명목부가가치중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55-60%수준에 넘나드는등 技術發展段階가 勞動集約型에서 資本集約型 加工組立型工業으로 진행 하고 있었고, 産業構造도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2, 3次的 비중이 韓國經濟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變化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國際收支面에서도 韓國經濟의 경우 1986년에 경상수지가 흑자(46억 17백 만불)로 반전된 이후 '87년 98.5억불, '88년에는 141억 6천만불로 점차 확대되었

〈表1〉 製造業 部門別 成長率 推移(한국)

단위 : %

연 도	제 조 업	경 공 업	중화학공업
1980	-1.1	2.2	-3.8
1984	14.8	9.2	19.8
1986	17.4	9.7	23.5
1988			

〈表2〉 産業構造 推移(韓·日 比較)

(단위 : %)

구조별	한 국			일 본		
	1978	1985	1988	1955	1960	1965
1 차 산 업	22.6 (38.4)	13.5 (24.7)	10.6 (20.7)	22.8 (41.4)	14.6 (32.6)	11.2 (24.6)
2 차 산 업	26.2 (23.2)	29.6 (24.5)	38.2 (28.5)	28.9 (23.8)	36.4 (39.2)	35.9 (32.3)
3 차 산 업	51.2 (38.4)	56.9 (50.6)	54.5 (50.9)	48.1 (35.2)	49.1 (38.2)	53.2 (43.0)

고, 특히 자동차 및 동제품등 기술집약적 중화학제품의 수출신장력과 수출경쟁력이 높아졌다. 일본의 경우 1958-60년까지 무역수지나 흑자가 나기 시작하여 1965-70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정착하는 시기였다.

商品別 輸出入構造를 보면, 〈表3〉과 같다. 韓國의 경우 80년대에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85년에는 40.7%, '88년에는 47.3%에 달했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 '60년에 이미 화학공업제품에 대한 수출비중이 44.0%에 달했고 '65년에는 62.0%였으며, 輸入도 原·燃料의 比重이 60~65%의 水準에 달하고 중화학공업품이 20%수준에 머물고 있어 韓國의 경우 重化學工業品の 輸入 比重이 점차 커져 50% 가까이 되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어 日本의 輸出構造가 韓國보다 유리한 條件에 있음을 알 수 있다.

<表3>

商品別 輸出入構成 推移(韓・日 比較)

(單位: %)

國 別 年 度 別	韓 國						日 本					
	1980		1985		1988		1955		1960		1965	
상 품 別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 료 품	7.3	8.4	4.1	4.7	4.1	4.6	3.3	25.3	6.3	12.2	4.1	18.0
원 연 료	2.2	46.7	4.1	36.5	2.1	26.8	6.3	51.1	2.2	65.7	1.5	59.3
경 공 업 품	65.6	14.1	51.0	15.4	51.7	20.9	52.0	-	47.0	1.3	31.8	3.1
중 화학 공 업 품	24.6	30.5	40.7	43.2	41.7	47.3	38.0	-	44.0	20.5	62.0	19.3

韓國經濟의 경우 '86년 이후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의 開放壓力으로 '88년 말 기준에 서 볼 때 무역자유화율은 98%에 달하고 있고, 외환 및 자본시장 개방압력을 크게 받고 있어 '92년까지 개방일정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日本의 경우도 1960년대에 들어서 수출규모의 증대와 경상수지흑자 등으로 대외개방압력이 가중화되어 貿易→外換→資本市場 순으로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실시하였음을 주목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매불가상승률을 살펴 보면, 韓國經濟의 경우 1982~86년까지 연평균 0.86%로 매우 安定的이었고, 1987~88년도 약간 상승하여 1.6%에 머물고 있었고, 日本의 경우도 1955~65년의 연평균 도매불가상승률이 0.51%로 매우 안정적이었다.

이상과 같은 一般的인 經濟狀況에 비추어 볼 때 '86년 이후의 韓國經濟와 가장 유사 하여 비교시점이 될 수 있는 日本의 시점은 대체로 1960~65년이라 할 수 있다.

Ⅲ. 轉換期 勞動市場의 韓・日 比較

[고 용 면]

勞動市場의 전환점이 통과되는 시기는 韓國의 경우 대개 1975~78년으로¹⁾ 日本의

註1) 배무기, "韓國經濟의 전환점", 韓國經濟研究新聞, 1981.11.28.

全經聯경제기술센터, 「韓國經濟의 전환점분석과 정책방향」, 연구자료 32, 1979. p. 30.

경우는 1955 ~ 57년으로 인식되고 있어 본고에서 비교하려는 시점의 前時期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먼저 兩國의 노동시장 전환기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兩國 모두 전환점이 통과된 이후에 호황을 맞이하여 고용증가가 크게 일어나고 심지는 노동력 부족현상까지 일었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 고용증대가 中小企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때부터 이미 未熟練勞動에서 勞動力 不足現象이 확산되었으나, 韓國經濟의 경우 고용확대가 高學歷 專門人力에서 이루어져 노동력 부족현상이 熟練 高學歷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韓國의 勞動市場은 '80년 이후 新二重構造 현상이 나타나서 기본기술 보완가설 (Capital-Skill Complementary)이²⁾ 증명되고 있다. 즉 자본집약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학력노동의 고용증가율이 크고, 생산직 고용은 호황에만 증가하고 불황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跛行性을 낳았다. 그 이유는 앞절의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經濟의 경우 전환점이 통과된 이후 3차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製造業을 中心으로 한 2차산업의 취업비중이 매우 더디게 증가하여 취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빨리 일어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日本은 이러한 취업구조의 서비스화가 '75년 (3차산업의 취업구조가 이때 비로소 50%를 넘기 시작함) 부터 일어났고, 이 시기에 마이크로일렉트릭스 技術이 급속하게 發展하는 등 情報化가 동시에 進行되고 있었으므로 1980년대에 초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취업구조 서비스화와는 사뭇 다르다.

註2) (1) Z.Griliches, "Capital-Skill Complementary", Review of Economic and Statistics, Nov. 1969, pp.465-468.

(2) P.R. Fallon, P.R.G. Layard, Capital-Skill Complementary, Income Distribution, and Out Account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 vol.83, NO. 2, 1975, pp.279-301.

(3) M.Sattinger, Capital and Distribution of Labor Earnings, North-Holland, 1983.

(2)의 模型으로 1980 ~ 86년까지 推定한 결과 製造業의 경우 資本.技術 補完 假設의 타당함이 증명됨, 李貞周, "韓國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化要因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禮文, 1987.8.

<表4>

職種別 就業者數 增加率 (韓國)

(單位: %)

년도별	職種別	專門・技術・ 行政・事務職	販賣・ 서비스職	生産職	總數
1975 ~ 79		10.92	4.50	9.48	3.36
1980 ~ 84		6.80	5.56	1.10	1.10
1985 ~ 88		8.7	14.8	9.1	7.9

[임금 구조]

전환점이 통과된 직후 兩國 모두 賃金引上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日本의 경우 초기에는 특별급여 중심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지만, 점차 정액급여의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韓國은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환점이 통과된 직후의 專門・技術職, 行政・管理職의 화이트 칼라의 임금인상율이 전직종의 평균임금상승율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전반적인 임금인상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生産職의 경우는 日本과 마찬가지로 특별급여 中心으로 이루어졌다.

<表5>

職種別 賃金引上率 (韓國)

(單位: %)

년도	專門・ 技術職	行政・ 管理職	事務職	販賣職	서비스 - 스職	生産職	全職種
1975-79	31.8	33.0	24.9	25.6	29.4	28.5	28.8
1980-84	12.7	9.4	11.5	18.7	15.4	15.0	14.9
1985-88	8.0	8.6	8.2	6.2	11.1	12.1	10.4

다음으로 賃金構造를 産業別, 學歷別, 職種別, 規模別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日本은 最低賃金制가 '57년에 실시되어 대체로 賃金隔差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韓國의 임금상승이 전환점이 지난후에 화이트 칼라를 中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賃金隔差가 日本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日本은 본논문의 비교시점인 1960-65년기간에 中小企業의 높은 임금인상으로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規模別 賃金隔差가 크게 축소되었

고, 産業別 賃金隔差는 1955-65년 기간에 한발 앞서 縮小되기 시작하여 1960-65년 기간에는 거의 안정적이다가 1965-70년 기간에는 더욱 한단계 레벨-업되어 賃金隔差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男女別 賃金隔差는 1958-59년 기간까지 오히려 賃金隔差가 확대되다가 1960년대 이후부터 정지내지는 축소되었지만 그 폭이 매우 적어 1965년에 女性の 賃金이 男性 賃金の 50%에 머무른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는 生産職보다 事務職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職種別 賃金隔差와 學歷別 賃金隔差는 製造業의 경우 男子가 크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賃金隔差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經歷年數別 賃金隔差는 매우 커서 30년이상 長期 勤續者는 1년 미만 勤勞者의 3배이상의 賃金を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총괄하여 보면, 日本의 경우 전환점을 통과하고 1960-65년에 접어들면서 産業別, 學歷別, 職種別 賃金隔差보다는 規模別, 性別, 經歷年數別 賃金隔差가 매우 컸으나 대체로 縮小傾向이 나타났다.

<表6> 規模別 賃金隔差(日本)

(單位: %)

年度	規模	500人以上	100-499人	30-99人	5-29人
1955		100.0	74.3	58.0	—
1960		100.0	70.7	58.9	46.3
1965		100.0	80.9	71.0	63.2
1970		100.0	81.4	69.6	61.8

<表7> 産業別·性別 賃金隔差(日本)

(單位: %)

年度	産業別			性別(女性)		
	全産業	製造業	保險·金融業	全産業	製造業	保險·金融業
1955	100.0	89.7	135.0	43.7	39.5 (42.3)	
1960	100.0	92.8	132.1	42.8	38.6 (41.8)	47.4
1965	100.0	91.7	128.3	47.8	45.9 (48.1)	47.5
1970	100.0	96.0	114.5	48.2	44.5 (46.8)	45.3

1) ()안은 生産職 女子賃金/生産職 男子賃金으로 定額給與로 計算한 것임.

<表8>

製造業의 職種別 學歷別 賃金隔差(日本)

	男		女	
	生産職	専門・技術・事務職	生産職	専門・技術・事務職
全學歷				
1965	99.7 (100.0)	96.4 (135.4)	101.3 (100.0)	104.2 (125.3)
1967	99.0	101.9	101.1	104.6
小學, 新中卒				
1965	(100.0)	(100.0)	(100.0)	(100.0)
1967	(100.0)	(100.0)	(100.0)	(100.0)
舊中, 新高卒				
1965	98.4	84.6	110.3	105.3
1967	96.2	29.4	106.5	106.9
舊高, 專・單大卒				
1965	—	135.0	—	—
1967	—	147.0	—	—
舊大, 新大卒				
1965	—	104.0	—	—
1967	—	111.1	—	—

()은 生産職 全學歷을 100으로 했을 경우.

資料: 勞動省, 「勞動經濟統計年報」, 1965, 1967.

<表9>

經歷 年數別 賃金隔差(日本)

	全經歷	0年	1年	2年	3~4年	5~9年	10~14年	15~19年	20~29年	30年~
全産業										
1965	149.3	100.0	107.4	115.3	130.0	158.1	203.0	232.0	263.5	316.3
1967	150.8	100.0	108.3	116.3	128.3	156.7	199.6	199.6	258.3	310.0
製造業										3
1965	149.7	100.0	106.3	114.1	130.4	159.2	210.0	250.3	208.9	327.7
1967	154.0	100.0	107.6	117.0	129.0	160.3	208.5	250.0	292.0	332.1

資料: 勞動省, 「勞動經濟統計年報」, 1965, 1967.

韓國은 전환점이 통과되고 1980 년대에 접어들어 폭발적인 勞使紛糾가 일어나 1986 年까지 産業別로 볼때 製造業부분이 특히 낮은 임금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職種別, 學歷別, 經歷年數別 賃金隔差가 매우 큰 상태에 있었다.

직종별 賃金隔差는 <表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사분규가 심한 1986-88년 기간에 크게 縮小되었지만 '87년에는 아직도 生産職의 임금은 專門·技術職 賃金の 1/2, 行政管理職의 1/3에 그치고 있었고, '88년에 專門·技術職을 제외한 전직종의 賃금이 향상되어 專門·技術職의 賃金は 生産職의 1.8 배 가량이 되었다.

<表10>

職種別 賃金隔差(韓國)

(單位: %)

年 度	專門·技術職	行政·管理職	事 務 職	販 賣 職	서비스職	生 産 職
1975	256.6	451.2	200.7	119.1	101.4	100.0
1978	249.1	405.0	169.4	120.7	96.1	100.0
1890	225.1	370.4	149.9	92.0	97.6	100.0
1982	221.5	325.7	146.4	117.0	98.3	100.0
1984	211.8	316.1	139.4	121.1	96.7	100.0
1986	205.6	300.7	137.1	120.7	92.7	100.0
1987	209.1	268.9	132.2	112.3	91.6	100.0
1988	183.3	267.7	126.6	107.2	93.2	100.0

資料: 勞動部, 「職種別 賃金調査」 該當年度

産業別로 볼때 <表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까지 製造業의 賃金引上이 낮아 産業別 賃金隔差가 深化되고 있고, 특히 製造業 중에서도 纖維, 衣服의 賃금이 낮아 隔差가 深化되고 있었으나, 1986-88년 기간에 製造業의 賃金上昇이 커지고 金融業을 비롯한 서서비스직종의 賃金引上이 상대적으로 낮아 賃金隔差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日本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상태이다.

그러나 性別 賃金隔差는 특히 1986-88년 기간에 크게 해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日本에서는 매우 양호한 편이나 아직 女性의 賃金は 男性의 1/2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表 11〉

産業別・性別 賃金隔差(韓國)

(單位：%)

年 度	産 業 別			性 別(女性)		
	全産業	製造業	保險・金融業	全産業	製造業	保險・金融業
1976	100.0	85.4	177.6	43.9	44.2	47.5
1978	100.0	85.1	173.4	43.4	44.6	49.1
1980	100.0	84.6	132.4	44.5	46.8	48.0
1982	100.0	84.8	131.0	45.9	46.8	55.2
1983	100.0	84.7	131.6	46.8	46.9	51.8
1984	100.0	84.6	136.0	47.8	48.2	51.3
1985	100.0	83.8	138.4	48.3	49.1	49.0
1986	100.0	83.9	135.2	49.6	50.4	48.9
1987	100.0	85.0	127.4	50.9	52.4	49.8
1988	100.0	88.6	119.4	52.0	52.1	51.1

學歷別 賃金隔差도 〈表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縮小되고 있지만 아직도 高卒과 大卒의 賃金隔差는 2배이상 나고 있으며, 産業別로 보면 金融, 保險, 不動産業, 製造業에서도 纖維・衣服, 고무 등에서 學歷간의 賃金隔差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表 12〉

學歷別 賃金隔差

(單位：%)

年度別	學歷別	全 學 年	中 卒 以 上	高 卒	初 大	大 卒 以 上
1975		145.7	100.0	174.8	238.1	374.8
1979		140.8	100.0	151.7	223.9	349.9
1980		139.2	100.0	145.4	212.8	333.2
1982		140.6	100.0	143.0	187.0	317.0
1984		137.9	100.0	134.1	176.7	304.1
1986		137.6	100.0	128.9	166.3	286.2
1987		128.4	100.0	118.4	148.7	247.5
1988		125.7	100.0	116.8	141.0	223.0

資料：勞動部, 「職種別 賃金實態調査 報告書」, 1986.

그리고 經歷年數別 賃金隔差 역시 <表 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80년에 약간 縮小되지만 곧 크게 擴大되고 있다. 이것을 職種別로 보면 生産職은 '83년 經歷年數別 賃金隔差가 增加했다가 다시 縮小하지만, 專門·技術職은 계속 增加하고 있다. 또한 勤務年數가 5년이상이 되면 1년미만 勤勞者의 거의 5배 가까운 賃金を 받고, 10년이상이 되면 1년미만 勤勞者의 3배 이상의 賃金を 받는 것으로 나타나 日本의 경우보다 극심한 尙況임을 알 수 있다.

<表 13>

經歷年數別 賃金隔差

(單位: %)

年 度	全經歷	1年미만	1~2年	3~4年	5~9年	10年以上
1976	145.4	100.0	127.6		194.0	283.7
1978	149.6	100.0	134.0		204.9	295.0
1980	140.3	100.0	115.7	137.1	186.1	263.1
1983	162.1	100.0	115.6	138.3	188.2	281.4
1986	163.2	100.0	114.2	135.1	180.1	263.4
1987	157.5	100.0	122.5	131.4	173.5	255.0
1988	152.5	100.0	111.7	130.5	168.5	243.2

資料: 勞動部, 「職種別 賃金調査」 該當年度.

IV. 勞使關係의 韓日比較

[勞動組合의 組織]

日本은 전환점이 통과한 시기인 1955-60년의 기간에 <表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勞動組合數와 組合員數의 增加速度가 1950-55년까지의 速度에 비해 매우 느리고 또한 好況으로 인하여 雇傭이 크게 증가하여 組織率이 31-32%로 最低水準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에 中小企業을 中心으로 주요상급단체의 未組織勞動者의 組織化活動의 強化로 新設組合이 크게 增加하였다.

그리고 본 論文의 比較期間인 1961-65년 기간에는 계속해서 組合數와 組合員數의 增加로 組織率은 34-35% 水準으로 增加趨勢에 있었다. 이는 이 期間에 都小賣業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업과 운수 통신 및 공익사업체에서 既存組合은 組合員이 증가하고 또

한 新設組合도 크게 增加하였음을 눈여겨 볼 수 있다.

〈表 14〉 産業別 勞動組合 및 組合員數(日本)

(單位:%)

年度	全産業	農林 漁業	鑛業	建設業	製造業	都小賣, 金融· 保險, 不動產業	운수·通信 公益事業	서비스 스業	公務員
1955									
組合數	32,012 (100.0)	2.3	3.3	5.8	30.1	9.9	23.6	15.3	9.7
組合員數	6,285,878 (100.0)	2.0	6.1	5.2	31.3	7.7	23.9	15.0	8.8
組織率	38.2%								
1960									
組合數	41,561 (100.0)	1.0	4.0	4.1	46.4	15.5	16.8	11.3	
組合員數	7,661,568 (100.0)	1.3	7.3	3.6	53.9	12.2	17.1	4.2	0.3
組織率	32.2%								
1965									
組合數	52,879 (100.0)	1.7	1.5	5.4	31.1	11.5	22.0	17.2	9.3
組合員數	10,069,761 (100.0)	1.5	2.0	5.9	37.5	10.2	20.6	12.4	9.6
組織率	34.8%								
1970									
組合數	60,954 (100.0)	1.5	0.8	5.4	29.5	13.0	22.9	17.6	8.6
組合員數	11,481,206 (100.0)	1.1	1.0	6.3	37.8	12.0	19.6	12.5	9.2
組織率	35.4%								

1) 組織率は 被傭者數로 計算한 것임.

이처럼 전환점이 통과한 직후에 오히려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떨어진 것은 日本의 경우 전환점이 통과하기 전인 1944-55년의 시기에 이미 격심한 勞使紛糾를 경험하였기 때문이고, 1960-65년 期間에는 企業別 組合主義가 定着되었다. 한편 1955-65년 期間에 상부단체로는 社會黨에 큰 影響을 미치는 總評(좌익계)으로 單位勞組의 40-50%를 掌握하고, 1956년 봄부터 춘투를 主導하여 經濟的인 이유보다는 政治 社會的인 이유로 격심한 勞使紛糾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韓國의 경우 組合數와 組合員數가 1975-79년까지 꾸준히 增加하여 전환점이 통과하는 時期인 1978-79년 동안에 組織率이 19.3-19.5%였으나, 1980年 勞動組合法의 改定으로 1986년까지 組織率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1987년 이후는 '86년

12월의 勞動組合法의 改定과 1987년의 6.29선언을 契機로 한 經濟의 民主化로 組合數와 組合員數의 급속한 增加로 '88년 12월말 基準으로 組織率은 17.8%에 이르렀고 單位組合數는 1987.6-1988.12 期間동안 125.4% 增加하여 6,142개가 되었다. 이는 '65년에 日本의 組織率이 34.8%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1/2 水準밖에 안되며 單位組合數나 組合員數도 日本의 1/10 水準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勞動組合이 動因으로 보면 6.29선언이라는 政治 社會的인 영향으로 급속한 組織化가 進行된 점에서는 日本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1년 國家保安法으로 묶여왔던 勞動組合運動이 일시에 풀려 폭발한 점도 있지만, 한편 經濟成長을 경험하고 전환점을 통과하는 經濟秩序에 따라 賃金引上이 上昇하고 있었지만 職種別, 學歷別, 經歷年數別 賃金隔差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注目해 보아야 한다.

<表 15> 勞動組合 및 組合員數(韓國)

	勞 動 組 合		組 合 員			조 직 률 (%) ²⁾	
	產 別	單 位 ¹⁾	計	男	女	女	全 體
1975	17	3,585	750,235	580,966	241,269	14.5	15.8
1978	17	4,042	1,054,608	696,865	357,743	15.9	16.9
1980	16	2,618	948,134	566,368	381,766	13.6	14.7
1982	16	2,191	984,136	633,106	351,030	13.8	14.3
1984	16	2,365	1,010,522	683,542	326,980	13.5	13.2
1986	16	2,658	1,035,890	724,566	311,324	13.2	12.3
1987	16	4,086	1,267,457	900,129	367,328	15.3	13.8
1988	21	6,142	1,707,000	1,232,000	475,000	20.1	17.8
1989.6			1,825,000	1,318,000	507,000	20.8	18.0

1) '75-'80년의 統計는 分회수(Branch)임.

2) 조합원수 ÷ 총피용자수 × 100

[勞 動 爭 議]

日本의 경우 1957-59년 전환점이 통과한 후 1961-65년동안은 勞動市場의 안정기로 產業別, 學歷別, 職種別 賃金隔差가 크게 縮小해 가고 있었고, 전환점이 통과하기전

에 이미 격심한 勞使紛糾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65년 기간에도 계속 勞使紛糾가 增加하고 있었다. 즉 1960년 好況에 힘입어 爭議行爲를 수반한 勞使紛糾가 크게 增加하였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景氣調整期인 '62년, '65년에도 勞動爭議件數 및 規模가 크게 增加하고 있었다.

産業別로는 製造業, 金融・保險業, 都小賣業에서 크게 增加하였고, 規模別로는 大企業보다는 中小企業에서 增加하였으며, 類型別로 보면 '65년에 作業拒否(同盟罷業, 工場閉鎖, 業務管理) 등의 강력한 행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또한 4시간미만의 罷業이 29% 정도, 同盟怠業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原因別로 보면 賃金에 관한 것(賃金引上, 臨時給與支給, 賃金滯拂)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臨時給與支給의 要求比重이 점차 減少하는 대신 賃金引上의 要求比重이 커지고 있었다.

이렇듯 日本은 노동시장이 비교적 安定的인 時期임에도 불구하고 勞動運動을 左翼系統인 總評이 主導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과격한 性格을 지니고 있고, 韓國의 勞動運動도 '87년이후는 “民主化”라는 經濟外的인 要因에서 과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이 勞動市場에서 전반적인 中小企業의 勞動不足이 擴散되어 賃金引上也 中小企業, 生産職에서 출발하여 全産業에서 賃金引上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59년 이후 最低賃金制의 적극적 실시 등으로 規模別, 年令別, 職種別 賃金隔差가 전반적으로 착실히 縮小되어 가는 도중에도 勞動組合의 組織率이 오히려 증가하고 勞動爭議의 要求事項도 각종 賃金引上이 70-75%를 차지하고 있으며 勞使紛糾의 類型도 매우 과격함을 발견할 수 있다.

<表 16> 勞動爭議件數와 參加人員 및 損失日數(日本)

年 度	總件數	總數(單位:千名)		爭議行爲를 수반하지 않은 것		勞 使 紛 糾 (件數)			
		參加人員	損失日數	件 數	參加人員	同盟罷業	工場閉鎖	同盟怠業	業務管理
1955	1,345	—	—	—	—	—	—	—	—
1956	1,330	3,372	4,562	591	1,767	631	44	337	5
1960	2,222	6,953	4,912	515	2,010	1,053	34	972	2
1965	3,051	8,975	5,669	692	2,748	1,527	50	683	(871)
1970	4,551	9,137	3,915	768	3,728	2,256	32	101	(2,356)

()은 4時間 미만의 罷業으로 1963年 부터 集計되고 있음. '63年 597件, '64年 667件.

그리하여 韓國의 경우 勞使紛糾가 '80年까지는 407件으로 약간 增加하였으나 '81년 이후 급격히 減少하다가 '86년에 267件으로 增加하는 趨勢에서 '87년 下半年에야 6.29 민주화선언으로 급격히 增加하여 3,749件으로 '65-'68년의 日本과 같은 수준이었다. '87년 下半年 이후의 勞使紛糾性格은 全產業에 걸쳐 동시 다발적이었고, 類型別로 보면 '87년에 作業拒否가 32.7%, 농성이 64.8%를 차지하고 있지만, '88년에는 올림픽으로 인한 爭議件數가 1,873件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어 '65년의 日本에 비해 과격한 편이 아니다. 原因別로 보면 '87년에 賃金引上, 賃金滯拂이 약 7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勤勞條件 改善이 15.1%, 그 다음에 團體協約이 4.5%에 달하고 있으나, '88-'89.8에는 賃金引上要求가 50% 수준으로 減少하고 있음에 비해 團體協約에 의한 勞使紛糾의 發生 比重이 20%이상으로 上昇하고 있어 우리나라 企業들의 勞組에 대한 認識不足을 읽을 수 있다.

<表17> 原因別 勞動爭議 發生 現況(日本)

年 度	要求事項總數	賃金引上	臨時給與支給	勤勞條件 및 解雇反對	(賃金滯拂) 賃金定期支拂	其 他
1955	1,538 (100.0)	17.4	32.7	12.4	7.3	10.1
1960	2,222 (100.0)	36.2	28.7	4.2	0.6	21.1
1965	3,051 (100.0)	50.2	26.7	7.9	—	11.7
1970	4,551 (100.0)	46.5	27.4	3.3	—	20.2

<表18> 類型別 勞使紛糾

年 數	總 數	作業拒否	籠 城	示 威	其 他
	發 生 件 數				
1978	102 (100.0)	55	76	3	18
1980	407 (100.0)	98	204	47	58
1982	88 (100.0)	67	16	3	2
1984	113 (100.0)	62	46	3	2
1986	276 (100.0)	138	112	21	5
1987	3,749 (100.0)	1,226	2,428	88	7
1988	1,873 (100.0)	675	1,178	5	15

< 表 19 >

原因別 勞使紛糾 發生 現況 (韓國)

(單位: %)

年度	勞使紛糾 件數計	賃金 滯拂	賃金 引上	操業 短縮	解雇	不當 勞動 行爲	勞動 條件	社納給	其 他
1976	133 (100.0)	24.1	31.6	5.3	7.5	14.3	3.0	-	14.3
1978	102 (100.0)	28.4	44.1	2.9	1.0	2.0	-	-	21.6
1980	407 (100.0)	70.5	9.3	2.7	1.2	-	3.4	-	12.8
1982	88 (100.0)	29.5	8.0	4.5	2.3	-	23.9	-	31.8
1984	113 (100.0)	34.5	15.0	1.8	4.4	6.2	12.4	10.6	15.0
1986	276 (100.0)	17.4	22.5	4.0	12.3	5.8	17.4	4.7	15.9
1987	3,749 (100.0)	1.2	69.7	0.3	1.4	1.7	15.1	0.4	10.2(4.5)
1988	1,873 (100.0)	3.2	50.5	1.1	5.9	3.1	7.3	-	20.9(17.5)
1989.8	1,342 (100.0)	2.8	50.0	1.8	4.9	0.7	1.6	0.5	37.7(24.6)

V. 韓國勞動政策의 方向

日本의 경우 일시적인 景氣調整期인 '62년과 東京올림픽 다음해인 '65년의 景氣沈滯期에도 勞動爭議가 크게 增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올림픽 이후 景氣가 短期的으로 後退한다고 해도 勞使紛糾가 安定되리라는 보장은 적다.

그 이유는 < 表 2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勞動所得分配率은 日本에 비해 매우 낮은 水準이고 당분간 賃金引上이 消費者物價上昇에 미치는 影響이 위협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消費者物價上昇率이 5%선을 위협하고 上昇하고 있지만 이것이 賃金引上만의 原因이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賃金上昇이 內需成長을 主導하고 있으므로 勞動組合의 賃金引上要求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言及했듯이 日本의 경우보다 賃金構造(隔差)가 매우 나쁜 狀態에서 새로운 賃金隔差(經歷年數別, 職種別)의 深化現象이 계속해서 勞使紛糾의 原因으로 남아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性別 賃金隔差가 최근 惡化되고 있고, 특히 經歷年數別 賃金隔差가 深化되고 있어 就業女性의 높은 比率이 組合員임을 감안할 때 勞使紛糾의 原因은 곳곳에 상존해 있다.

〈表 20〉

勞動所得 分配率의 韓·日 比較

(單位: %)

年 度	日 本	年 度	韓 國
1955	79.39 ¹⁾	1978	58.93 ²⁾ (51.1) ³⁾
1957	74.88	1980	59.66 (42.5)
1959	76.06	1982	57.24 (44.5)
1961	71.48	1984	(43.9)
1963	74.33	1985	(48.0)
1965	76.33	1986	(41.9)
1970	71.28		

資料: 1) Edward F. Denison and William K. Chung, How Japan's Economy Grew so fast,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76, p.28.

2) Kim Kwang-Suk, Park Joon-Kyung,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註: 1), 2)의 推計는 成長要因 分析을 위한 勞動의 가중치로 使用하기 위해 國內 總生産에서 推計된 것임.

3)은 製造業의 경우만 推計한 것임.

마지막으로 勤勞條件改善이라는 要求事項의 比重이 최근 급격히 減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勞動市場이 生産職과 專門·技術職의 勞動需要가 매우 큰 상태에 있어 製造業의 과중한 勞動市場도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月平均 勞動時間은 日本에 비해 매우 過重한데, 특히 製造業部門은 계속 增加하여 日本의 약 2.5倍 水準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로 여기에는 製造業의 生産職 勤勞者의 勞使紛糾 原因(定額給與 引上要求와 勤勞時間 短縮, 勤勞條件 改善)이 잠재해 있다.

〈表 21〉

團體交渉에 의한 賃金引上 實績과 物價, 經濟成長率(日本)

年 度 (年平均)	金引上額 (엔)	金引上率 (%)	賃金引上總 四 分位 分散計數	消費者物價上昇 率 (%)	實質經濟成長率 (%)
1955-59	1,139	6.3	0.25	1.4	7.6
1960-64	2,564	10.9	0.14	6.2	11.6
1965-69	4,496	12.4	0.10	4.8	10.9
1970-74	14,460	20.5	0.07	10.9	7.2

資料: 日本生産性本部, 「活用勞動統計」, 1980年.

<表 22 >

韓・日 月平均 勤勞時間의 比較

年度	日 本		年度	韓 國	
	全 產 業	製 造 業		全 產 業	製 造 業
1955	194.8 (16.5)	198.0 (18.3)	1980	223.9 (28.6)	230.6 (35.7)
1960	202.7 (21.9)	207.0 (25.0)	1982	226.4 (32.2)	233.4 (37.0)
1965	192.9 (16.5)	191.8 (16.7)	1984	227.5 (34.1)	235.8 (39.8)
1970	186.6 (16.7)	187.4 (19.0)	1986	227.5 (34.4)	237.7 (41.9)
			1987	225.5 (33.9)	234.6 (42.4)
			1988	221.8 (31.2)	228.6

1) ()은 超過勤勞時間

政策當局은 지난 '88년 4/4 분기부터 景氣沈滯가 지속되고 있는 現 經濟狀況에서 強力한 景氣扶養策의 실시와 함께 勞使關係의 安定을 追求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分析한 바와 같이 곳곳에 勞使紛糾의 原因이 산적해 있는 한편 現 노총에 對항한 在野民主勢力의 聯合으로 勞動運動의 에너지는 만만치 않다. 따라서 勞動正策도 長期的인 觀點에서 紛糾의 핵심인 生産職과 專門·技術職 勞動力 不足에 對해 對비하고, 經濟成長의 原動力도 賃金引上 등에 따른 內需增加에로 視覺을 돌려 巨視的인 經濟政策을 수립할 必要가 있다.

參 考 文 獻

- 勞動部, 職種別 賃金調查報告書, 1976-1988年.
- 韓國勞動研究院, 分期別 勞動動向分析, 제2권 제3호, 1989年
-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主要經濟指標, 1989年.
- 勞動省, 勞動經濟統計年報, 1950-1970年.
-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國 勞動所得 分配率의 變化要因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1987年 8月.
- 金炯基, 韓國의 獨占 資本과 賃勞動, 까치글방, 1988年.
- 卓熙俊博士停年退職紀念論文集, 韓國의 工業化와 勞使關係, 정암사, 1988年.

- 労働部, 1987年 여름의 勞使紛糾評價報告書, 1988.
- 渡邊利夫, 現代韓國經濟分析, 勁草書房, 1982年.
- 渡邊弘, 資本蓄積と 所得分配 - Neo-Keynesian分配理論의 Macro的 基礎 -, 有斐閣, 1979年.
- 仁田道夫, “構造變化と 労働關係戰略”, 日本労働協會雜誌, 第342號 1988年1月.
- 山田節夫, “労働時間短縮と 現代の 雇用問題 - 法定労働時間短縮の 雇用創出効果を中心として-”, 日本労働協會雜誌, 第336號 1987年 7月.